

비상경제본부 회의 겸
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
26-11-1
(공개)

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“열풍” 조성방안

2026. 4. 24.

관 계 부 처 합 동

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(요약)

I 추진배경

- 성장의 과실이 수도권·대기업에 집중되는 K자형 성장 고착화, 자동화 등 산업구조 변화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“취업” 청년 증가
- 창업을 통해 일자리 패러다임을 ‘찾는 것’에서 ‘만드는 것’으로 전환 필요
 - ‘26.3.25일 민·관합동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새롭게 출범하고 ‘모두의 창업’ 및 ‘모두의 지역상권’ 추진전략 발표

⇒ ‘모두의 창업(창업씨앗) → 테크 + 로컬창업 확산 → 창업생태계 강화’로 이어지도록 ‘스타트업 열풍’ 조성방안 마련·추진

II 추진방안

1 [창업 씨앗] ‘모두의 창업’ 프로젝트

- (추진현황) 모두의 창업 1차 프로젝트는 3.26일 공고 이후 전국민 아이디어 공모 중(~5.15)
 - ➡ 5천팀을 선발하여 연말까지 지역별-권역별-대국민 오디션 추진
- (2차 프로젝트) 추경(0.2조원)을 통해 연내 2차 프로젝트 추가 개최, 지역·광역 오디션을 통합한 패스트트랙으로 운영해 연내 우승자 선정
 - ➡ 최종 우승자 10억원 이상(상금 5억원+ 투자 5억원 이상) 파격 지원

< 모두의 창업 1·2차 오디션 추진체계(안) >

단계		1단계 (공모·보육)	2단계 (지역 오디션)	3단계 (권역 오디션)	4단계 (최종 오디션)
1차	일반 / 기술	~7월 4천명 창업활동자금 200만원	~9월 5백팀 사업화자금 최대 1,000만원	~11월 2백팀 사업화자금 최대 1,000만원	12월 100팀 상금+투자 10억원 이상
	로컬	1천명 200만원	6백팀 최대 3,000만원		100팀 최대상금 1억원
2차 (추경)		1단계 (공모·보육) ~7월 200만원	2+3단계 (지역+광역 통합 오디션) ~11월 최대 2,000만원		4단계 (최종 오디션) 12월 10억원 이상

※ 2차 프로젝트 참여 팀 수는 추후 결정

- **(창업도시 선정)** 과기원 소재지를 4대 창업도시*로 우선 지정('26년)
→ 5극3특을 고려해 비광역권 중심으로 6곳 추가 선정('27.上)

* 대전(KAIST), 대구(DGIST), 광주(GIST), 울산(UNIST)

- **(패키지 지원)** 거점 창업도시에 인재·R&D·규제·투자·공간 집중 지원

- ① **(인재)** 4대 과기원별 창업원 신설 및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 신규 지정, 지역산업 연계 기획창업 등 창업교육 강화

- ▶ (혁신창업원) (現) KAIST만 보유 → (改) 4대 과기원으로 확대(추경+8억원)
- ▶ (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) (現) UNIST 지정 → (改) '27년까지 4대 과기원으로 확대
- ▶ (지역산업 연계 기획창업 등) 지역 산업의 문제를 해결할 딥테크 창업팀을 구성하고 사업화 지원(시제품 제작, 시장검증, BM 고도화 등), IP 포트폴리오 지원, 실험실 구축 등(추경+280억원)

- **(학사제도)** 교수·학생 창업 촉진을 위해 창업규정 대폭 완화, 과기원 중심으로 우선 개선하고 일반대학까지 확산

- ▶ (창업승인절차 간소화) 10단계, 최장 6개월 → 7단계, 약 2주
- ▶ (휴학·휴직) 창업 휴직(現 3년) 제한기간 최대 7년으로 연장, 창업 휴학(現 4년) 제한 폐지
- ▶ (이해충돌방지 특례) 과기원법 내 이해충돌방지법 조항(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) 등에 대한 특례 마련

- ② **(투자)** 창업도시 내 창업기업에 최대 3.5억원의 사업화자금 지원, '지역성장펀드(모펀드)'를 '26년 4,500억원 이상, '30년 2조원 조성

- ③ **(R&D)** 창업도시 내 창업기업에 전용 R&D 지원*을 강화하고 지역 TIPS 지원 확대(지역 50% 우선 할당)

* 창업성장 R&D 지역 전용트랙 운영시 '창업도시' 지원 기업수 배정 규모 확대

- ④ **(공간)** 복합 창업공간 스타트업 파크 5곳, 지역투자자 거점 엔젤투자허브 10곳 및 KVIC 지역사무소 6곳 추가 구축

* 스타트업파크('25년 5곳 → '30년 10곳), 엔젤투자허브(25년 4곳 → '30년 14곳) 조성, KVIC 지역사무소 전 권역으로 확대(現 1곳 → 수도권 제외 6개 추가 설치, 총 7곳)

- 과기원별로 구축중인 창업 인프라*(공간·실증시설 등)도 개방

* KAIST 지식산업센터('28 완공), UNIST 챌린지융합관('28 완공), DGIST 산업AX혁신허브('29 완공)

- ※ **방산*, 제약·바이오, 기후테크 등 분야별 딥테크 혁신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도 순차적으로 발표**

* 「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」 既 발표('26.2.23)

3

[로컬창업] '모두의 지역상권' 추진 전략

- 지역상권의 點(창업·성장), 線(상권 조성), 面(확산)을 확장하여 경쟁력 있는 상권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'모두의 지역상권' 전략* 추진 중
 - * 3.25일 「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」 발표(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)
- 글로벌 상권 17곳(~'30년, 상권당 50억원), 로컬 테마상권 50곳(~'30년, 상권당 40억원) 조성 추진
- 투자유치 기업에 투자금액 매칭 융자(최대 5억원), 사업화 자금(최대 2억원)을 지원하는 LIPS 확대(추정 300→450개사)
 - * Local & lifestyle biz Incubator Program for Strong Enterprise
-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제품·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한 '생활형 혁신 기술개발' 지원(추정 400억원)

4

[창업생태계] 금융혁신·규제·재도전·개방형 생태계 조성

- ① (금융) ①비수도권 벤처투자 인센티브 강화, ②초기기업 주식거래 활성화, ③퇴직연금·연기금 벤처투자 확대 등 민간투자 유도 3중세트 도입

- ① (비수도권 인센티브) 지역성장펀드 자펀드에 모태펀드 우선순실충당 비율 확대(10→15%, 최초 출자자에게 출자자 지분을 모태펀드가 매수토록 청구할 권리 부여(פותוס션 30% 이내)
- ② (초기기업 주식거래) 모험자본 중개플랫폼 신설하여('26.下) 스타트업 자금조달 수요와 전문투자자(VC, PE 등) 투자수요 매칭 K-장외거래소 경쟁체제 도입으로 비상장주식 거래 접근성 제고
- ③ (퇴직연금·연기금) 퇴직연금 벤처투자 허용(퇴직급여법령 개정 추진, '27), 연기금 기금 운용평가상 벤처투자 인센티브 확대(벤처투자 가점 확대, 정성평가에 벤처투자 추가 등)

- 모두의 창업 참여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창업열풍펀드 조성('26년 500억원)
- ② (규제) 5극3특 중심으로 메가특구를 지정하고, 특구 내 전략산업 분야 창업기업에 특화해 메뉴판식 규제특례 지원
- ③ (개방형 혁신) 국가 전략산업 분야 스타트업과 대·중견·공공기관이 개방형 혁신 프로젝트 추진시 최대 3.4억원 지원
 - (제조 AX 암묵지) 제조업 현장 암묵지를 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'26년 30개(추정 480억원), '30년 1천개 이상 제조공정의 AI 솔루션 개발
- ④ (재도전) 창업 경험을 데이터로 축적해 '도전 경력서'를 발행하고 향후 '모두의 창업' 등 창업지원사업 참여 우대
 - 청년창업가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'청년창업도전학교' 신설, 재도전펀드 1조원 조성(~'30), 재창업자 전용자금 확대(추정 500억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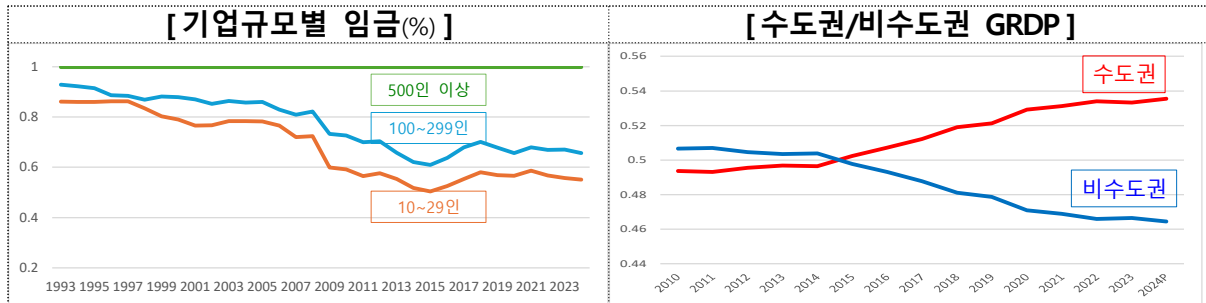
⇒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어디서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창업시대를 열고 '모두의 창업'을 '모두의 성장'으로 확산

순서

I . 추진배경	1
II . 기본방향	2
III . 스타트업 “열풍” 조성방안	3
1. (창업 씨앗) ‘모두의 창업’ 프로젝트	3
2. (테크창업) 과기원 중심 ‘창업도시’ 조성	5
3. (로컬창업) ‘모두의 지역상권’ 추진 전략	9
4. (창업생태계) 규제금융혁신 재도전 개방형 생태계 조성...	11
IV . 추진일정	17

I. 추진배경

- 최근 성장의 과실이 수도권·대기업·경력자에게 집중되고, 지방·중소기업·청년까지 확산되지 않는 'K자형 성장' 고착화



- 산업구조 변화(자동화 등)에 따라 구조적 일자리가 감소*하고 '쉬었음' 청년도 증가** → 안정적 소수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 심화

* 산업의 일자리 창출력(취업유발계수, 10억당 취업자수): ('12) 12.5 → ('18) 10.1 → ('23) 8.2

** '쉬었음' 청년(만명): ('12) 31.6 → ('18) 31.3 → ('24) 42.1

➡ **일자리 패러다임**을 '찾는 것'에서 '만드는 것'으로 **전환** 필요

- 창업 확산이 필요하나, 실패에 따른 부담을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고*, 창업 기회·인프라도 수도권에 집중**

* 창업기업 5년 생존율(% '20): (스웨덴) 63.3, (미국) 50.2, (OECD 평균) 45.4, (한국) 33.8

** 창업 인프라 수도권 밀집 비중(% '24) : (대규모 창업인프라) 60.0 (벤처투자) 75.3 (VC) 90.4

➡ 주식회사 **대한민국**이 **창업**의 **동업자**가 되어 **리스크 부담 + 아이디어**를 보유한 **누구나, 전국 어디서든 마음껏 창업**

- ① 창업 열풍 조성(창업 씨앗) 위한 전국민 참여 오디션('모두의 창업') 추진
- ② 4대 과기원 등 지역거점 창업도시를 조성해 수도권에 쏠린 테크창업을 지방으로 확산
- ③ 지역관광·문화와 연계한 로컬창업 육성 및 상권 조성
- ④ 규제·금융혁신, 재도전, 개방형 생태계 등 창업생태계 조성

⇒ 창업씨앗 → 테크창업 + 로컬창업 → 창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"열풍" 국가창업시대 개막 ⇒ '모두의 창업'을 '모두의 성장'으로 확산

※ '창업'이 일자리 대책, 청년대책이자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성장전략임

II. 기본방향

'모두의 창업'을 '모두의 성장'으로

"열풍" 국가창업시대 개막

일자리 패러다임을 '찾는 것'에서 '만드는 것'으로 전환

(주)대한민국이 창업의 동업자가 되어
리스크 분담



아이디어를 보유한 누구나 전국 어디서든
마음껏 창업

1 [창업 씨앗] '모두의 창업' 프로젝트

- **수 국민이 참여하는 지역·권역별 창업 오디션 프로젝트** → 창업 열풍 조성

2 [테크창업]

과기원 중심 '창업도시' 조성

- 4대 과기원 소재지 등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 선정
→ **인재·공간·자금·투자 패키지 지원**
- 방산, 제약·바이오, 기후테크 등 분야별 딥테크 혁신 스타트업 육성

3 [로컬창업]

지역자원 활용 로컬창업 활성화

- [點] **지역자원**(문화·관광 등) 활용 로컬창업 활성화, 스케일업 지원
- [線] 로컬기업이 모여 성장하는 상권 조성
- [面] 전국으로 펼쳐지는 활력 상권

4 창업생태계

[규제혁신] 창업기업 규제특례	[금융혁신] 민간투자 유인 3중세트 등	[개방형 생태계] 제조 AX 암묵지 등 공유	[재도전] 재도전 환경 조성
○ 메가특구 전략산업 창업기업 규제특례 ○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도입	○ 비수도권 창업·벤처 투자 인센티브 강화 ○ 비상장 주식거래 활성화 ○ 연금 등 벤처투자 촉진	○ 제조 AX 암묵지 스타트업 공유 촉진 ○ 스타트업과 대·중소간 개방형 혁신 ○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	○ 1조원 재도전 펀드 조성 ○ 재도전 플랫폼 구축 ○ 청년창업도전학교 신설

Ⅲ. 스타트업 “열풍” 조성방안

1 [창업 씨앗] ‘모두의 창업’ 프로젝트

- ◆ 아이디어를 보유한 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창업 오디션 프로젝트, ‘모두의 창업’ 가동 → 최종 우승자 10억원 이상(상금+투자) 수여
- 전국 창업기관(100여 곳) 및 선배 창업가 멘토단(500여 명) 등 민간·공공 창업 생태계 전반의 역량 결집

□ ‘모두의 창업’ 오디션 추가 개최(年 2회로 창업 열풍 확산)

- 추경(0.2조원)을 통해 연내 ‘2차 모두의 창업’ 오디션 개최
- ※ 2차 프로젝트는 지역·광역 오디션을 통합한 패스트트랙으로 운영
- 전국 5대 권역*, 17개 지역별 경연을 거쳐 우수팀 대상으로 사업화자금, 상금 및 후속사업화 지원
- * ①서울, ②경기인천, ③강원충남충북세종·대전, ④광주전남전북 ⑤대구경북경남부산·울산
- 지역 균형성장을 고려하여 비수도권 창업가를 70% 이상 선발
- * (기술) 수도권 30%, 비수도권 70% / (로컬) 수도권 10%, 비수도권 90%

< 모두의 창업 1·2차 오디션 추진체계(안) >

단계		1단계 (공모·보육)	2단계 (지역 오디션)	3단계 (권역 오디션)	4단계 (최종 오디션)
1차	일반 / 기술	~7월	~9월	~11월	12월
		4천명	5백팀	2백팀	100팀
	로컬	창업활동자금 200만원	사업화자금 최대 1,000만원	사업화자금 최대 1,000만원	상금+투자 10억원 이상
		1천명	6백팀		100팀
		200만원	최대 3,000만원		최대 상금 1억원
2차 (추경)	1단계 (공모·보육)	~7월	2+3단계 (지역+광역 통합 오디션)	4단계 (최종 오디션)	
		200만원	~11월	12월	
			최대 2,000만원	10억원 이상	

※ 2차 프로젝트 참여 팀 수는 추후 결정

- ① (1단계 : 아이디어 공모·보육) 전국민 대상 아이디어 공모·심사를 통해 혁신 창업가 5천명 이상을 선발, 창업활동자금 2백만원 지급
 - 전국 100여곳 창업 보육기관의 창업코칭 및 AI 솔루션 활용 지원* 등을 거쳐 '창업오디션'에 도전할 500팀 선별
 - * 조직·영업관리, 재무·회계, 마케팅, 데이터 분석 등 → AI 스타트업 실증판로 기회 제공
- ② (2단계 : 지역별 오디션) 전국 17개 시·도 지역 오디션 개최
 - ➡ 500팀 대상 최대 1천만 원 사업화 자금 지원 및 선배 창업가 멘토단(500여 명)과 상시 멘토링 지원 + 200팀 선별
- ③ (3단계 : 권역별 오디션) 전국 5대 권역별 창업오디션 개최
 - ➡ 200팀 대상 최대 1천만원 사업화 자금 지원 + 100팀 선별
 - ※ 로컬창업의 경우 2~3단계(지역·권역별 오디션) 포함 600팀 선별 + 사업화자금 최대 3천만원 지원
- ④ (4단계 : 최종 오디션) 본선 진출 1백팀 대상 TV 창업오디션 프로그램(넷플릭스 등) 통해 국민적 관심과 참여 유도
 - ➡ '100팀 창업루키' 대상 후속 사업화 자금(최대 1억원) 지원
 - ➡ 최종 우승자 10억원 이상(상금 5억원+ 투자 5억원 이상) 파격 지원
- (모두의 플랫폼) 단순한 신청 창구를 넘어 참여자와 보육기관·멘토단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'모두의 플랫폼(www.modoo.or.kr)' 구축
 - ➡ 아이디어를 홍보하고 우수한 기관·멘토를 만날 수 있는 장 조성
- ※ (범부처 연계) 모두의 아이디어(지재처), AI 경진대회(과기부) 등 부처별 경진대회에서 발굴한 혁신 인재를 모두의 창업에 연계
- * 예 : 모두의 아이디어(지재처), AI 경진대회(과기부) 수상자는 모두의 창업 참여 우대 등

2

[테크창업] 기술인재 중심 '창업도시' 조성

- ◆ 과기원 소재지를 **4대 거점 창업도시**(대전·대구·광주·울산)로 선정('26년)
+ '27년까지 지역 성장동력 중심 **6곳** 추가해 **총 10곳** 조성
- 인재·R&D·규제·투자 패키지 지원 → **지역 혁신 스타트업** 성장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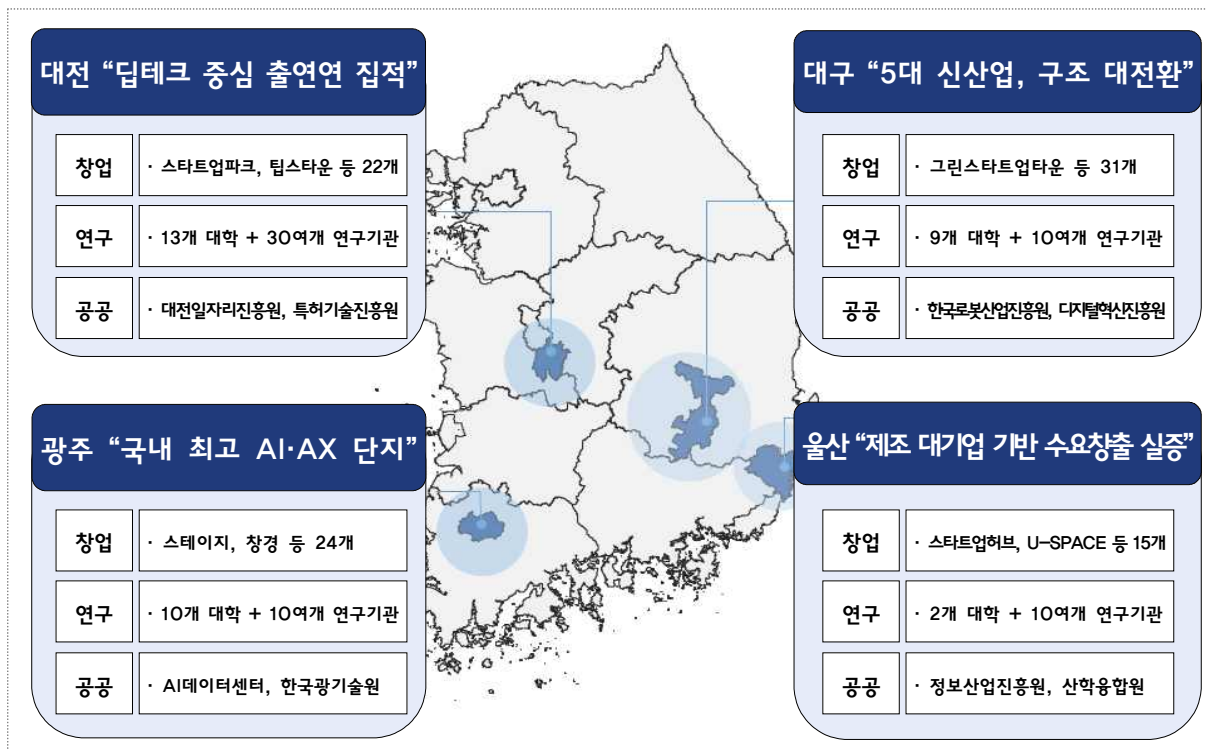
① 과기원 소재지를 4대 거점 창업도시 선정 → '27년까지 10곳 조성

- 혁신 기술인재의 산실인 과학기술원 보유 지역*을 4대 거점 창업도시로 우선 선정('26년)

* 대전(KAIST), 대구(DGIST), 광주(GIST), 울산(UNIST)

- 과기원 창업리그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, 공유 실험실 조성(^{추경}398억원)

* (창업리그) 4대 과기원 예비·초기 창업팀 대상 공동 창업경진 대회 개최(60억원)
(글로벌 네트워크) 글로벌 잠재력 창업팀 해외진출 종합 지원(현지 기술검증투자유치 등, 50억원)

< 4대 거점 창업도시별 강점 분야 및 창업 인프라 >

- 5극3특을 고려하여 비광역권 중심으로 창업도시 6곳을 추가 선정('27.上)해 총 10곳의 거점 창업도시 조성
- 10개 창업도시를 거점으로 인근도시까지 창업생태계 연계·확산

② 거점 창업도시에 **인재·R&D·규제·투자·공간 패키지 집중 지원**

① **(인재)** 우수 창업인재 육성과 유입·정착을 위해 창업교육 강화 및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개편, 정주여건 개선

- **(창업인재 육성)** 4대 과기원별 창업원 신설 및 과기원 중심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 신규 지정

▶ **(혁신창업원)** (現) KAIST만 보유 → (改) 4대 과기원으로 확대(추경+8억원)

▶ **(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)** (現) UNIST 지정 → (改) '27년까지 4대 과기원으로 확대

- 지역산업 연계 기획창업 지원 및 실험실창업혁신단 확대 등 지역특화 창업교육 강화

▶ **(지역산업 연계 기획창업 등)** 지역 산업의 문제를 해결할 딥테크 창업팀을 구성하고 사업화 지원(시제품 제작, 시장검증, BM 고도화 등), IP 포트폴리오 지원, 실험실 구축 등(추경+280억원)

▶ **(실험실 창업혁신단)** 권역별 창업혁신단*을 전국으로 확대(現 14개 → '30년 20개)

* 공공 연구성과 기반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팀(석·박사 과정생 등, '26년 247팀 내외)을 발굴하고 보육하는 지역 거점대학 등의 전담 조직

- **(학사제도)** 교수·학생 창업 촉진을 위해 창업규정 대폭 완화, 과기원 중심으로 우선 개선하고 일반대학까지 확산

▶ **(창업승인절차 간소화)** 10단계, 최장 6개월 → 7단계, 약 2주

▶ **(휴학·휴직)** 창업 휴직(現 3년) 제한기간 최대 7년으로 연장, 창업 휴학(現 4년) 제한 폐지

▶ **(이해충돌방지 특례)** 과기원법 내 이해충돌방지법 조항(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) 등에 대한 특례 마련

-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도(통상 3학점)를 창업학기제(15학점 이상)로 확대

- **(정주여건)** 창업도시 내 창업기업의 창업자와 근로자에 주거·교통·문화활동비 등의 정착지원금 지원 확산(지방정부)

* (現) 대전 스타트업파크 근로자 주거비(월 20만원) 대구 전략산업분야 창업자 임대주택(100세대) 등

② **(R&D 및 규제)** 우수 스타트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R&D 지원과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특례 확대

- **(R&D)** 창업도시 내 창업기업에 대한 전용 R&D 지원* 강화 및 지역 TIPS 지원 확대(지역 50% 우선 할당)

* 창업성장 R&D 지역 전용트랙 운영시 '창업도시' 지원 기업수 배정 규모 확대

- **(규제)** 창업도시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, 지역의 특수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규제특례 확대

③ **(투자)**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사업화자금·투자 지원

- **(자금)** 창업도시 특화산업 분야 창업기업에 최대 3.5억원 사업화 자금 지원(160개 기업) 및 정책자금심의 패스트트랙(3주→10일) 적용
- **(펀드)** 4대 거점 창업도시 포함한 지역에 '지역성장펀드(모펀드)'를 '26년 4,500억원 이상, '30년 2조원 규모로 조성

* 지역성장펀드 자금으로 과기원과 연계한 4대 창업도시 특화펀드 조성

④ **(공간)** 복합 창업공간 스타트업 파크 5곳, 지역투자자 거점 엔젤투자허브 10곳 및 KVIC 지역사무소 6곳 추가 구축

* 스타트업파크('25년 5곳 → '30년 10곳), 엔젤투자허브(25년 4곳 → '30년 14곳) 조성, KVIC 지역사무소 수 권역으로 확대(現 1곳 → 수도권 제외 6개 추가 설치, 총 7곳)

- 과기원별로 구축중인 창업 인프라*(공간·실증시설 등)도 개방하여 창업거점으로 활용하고, 지역별 빈 건축물도 창업공간으로 전환

* KAIST 지식산업센터('28 완공), UNIST 챌린지융합관('28 완공), DGIST 산업AX혁신허브('29 완공)

⑤ **(연구개발특구 연계)** 창업도시 소재 연구개발특구 내 출연연·지역거점대를 통해 딥테크 기술발굴·기업설립 등 기획형 창업 지원(^{추경}60억원 +40개팀 총 70개팀)

- 공공기술 기반 창업기업의 지역 안착 및 성장을 위한 R&BD 지원, 1천억원 규모의 '스케일업 펀드' 조성

③ IP 등 특허 기반 테크창업 활성화

- **(사업화)** 민간투자기관 연계를 통한 스타트업 대상 투자·보육 + IP 사업화 전략 패키지* 지원('26년 60개사)

* 경쟁사 특허분석, 협력업체 발굴, IP기반 시제품 제작, 제품 고도화 등

- **(IP 공개)** 국가·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IP 등을 스타트업에 개방

- **(신속심사)** 첨단기술(AI·바이오) 분야 스타트업 대상 초고속 특허 심사(평균 14.7개월 → 1개월 內) 전용트랙 신설 + 우선심사 대상 확대*

* 중기부 '해외진출 창업지원사업' 수혜 스타트업, 대학·공공연 예비창업자까지 확대

④ 방산·바이오·기후테크 등 분야별 딥테크 혁신 스타트업 육성

※ 방산*, 제약·바이오, 기후테크 등 분야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

* 「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」 既 발표('26.2.23)

- ① **(방산)** '모두의 챌린지 방산'*을 통해 스타트업 진입 촉진 + 軍 수요연계 R&D 지원(구매연계형 R&D 지원 등) 등 성장 지원
* 軍·방산업체가 제시한 과제를 해결할 스타트업을 공모해 기술검증 등 지원(기업당 1억원)
 - AI 스타트업의 방산 진입 촉진을 위해 軍 소요 + 데이터 + AI 인프라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'국방 AX 거점' 조성
 - 방위산업 상생협력 수준 평가를 도입('26년)하고, 상생협력 성과가 우수한 기업 대상 원가산정 등 인센티브 부여
- ② **(제약·바이오)** 1조원 규모 K-바이오·백신펜드를 조성(~'27년) 하고 부처 정책펀드 간 제약·바이오 생애주기에 따른 연계 체계* 구축
* (중기부과기부) 후보물질 개발 → (복지부과기부) 전임상·임상 → (금융위) 후기 임상
- ③ **(기후테크)** '기후테크 챌린지'를 개최해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발굴하고, 사업화자금 및 후속 투자 연계
 - 5대 기후테크 분야 유망 혁신기업을 선발(10개社)해 사업화 자금 및 투자 연계* 지원
* (사업화 자금) 재료비, 특허권, 외주용역비, 교육훈련비, 인증 획득 지원 등 (투자기회 제공) 국내외 기후테크 서밋을 통해 투자처 확보 지원 등
 - 기후테크 전용 펀드* 조성, 기후테크 제품의 공공조달 우선 구매** 등 성장 기반 마련('26년)
* 기후부 R&D 자금 전담은행의 출자자금 기반으로 총 6,000억원 규모 조성
** 기후테크 제품군 발굴하여 녹색제품에 포함→공공기관 의무구매 비율 단계적 확대
- ④ **(에너지)** 한전 기술지주회사*를 설립('26.6월)해 동반성장 프로그램 및 기술지주 후속투자를 결합해 에너지 신기술 창업 지원**
 - * 기술이전법상 첨단기술지주회사로 기술사업화, 투자, 기업육성 전문회사
 - ** 에너지 스타트업 전용 펀드, 전력 실증설비·데이터 개방, 한전 기술이전 등
 - 에너지공대-GIST-전남대를 연결하여, 전력망 플랫폼 테스트 베드를 구비한 'K-GRID 인재·창업 밸리(나주)' 구축
- ⑤ **(콘텐츠)**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를 통해 청년 창업 콘텐츠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정책펀드 조성(추정 250억원)

◆ **정부 확보 GPU(약 5만장, ~'28년)의 일정 부분을 중소·스타트업에 배분해 딥테크 혁신 스타트업의 AI 활용·연구개발 등 지원**

* 25년 정부 확보 GPU(약 1만장)은 30% 이상을 중소·스타트업에 배분 추진

◆ '지역다움'을 경쟁력으로 **지역상권의 點(창업·성장), 線(상권 조성), 面(확산)**을 확장하여 모두가 즐기는 **활력 있는 지역상권 조성**

- 지역 공동체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현되는 **상권협력 모델** 구축

□ **[點 : 창업·성장] 활력 상권의 씨앗, 로컬창업 활성화**

- **(창업)**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로컬기업 1천개사를 육성 + ^{추경}2차 프로젝트를 통해 로컬 창업가 추가 발굴·육성

- 지방 로컬창업 지원 비중을 90%까지 확대(現 79%)

- **(성장 촉진)** 로컬기업이 지역의 핵심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

- 투자유치 기업에 투자금액 매칭 융자(최대 5억원), 사업화 자금(최대 2억원)을 지원하는 LIPS* 확대(^{추경}300 → 450개사)

* Local & lifestyle biz Incubator Program for Strong Enterprise

-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제품·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한 '생활형 혁신 기술개발' 지원(^{추경}400억원)

- '글로벌 기업 육성 프로그램' 신설로 상품개발, 마케팅, 판로 등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(최대 1억원, '26년 95억원)

- 유망 지역 특산품의 IP 자산화 및 브랜드화를 지원하여 '29년까지 지역대표 브랜드 100개 육성*(지역대표 K-브랜드 100)

* ('26년) 5극3특 권역별 3개(총 24개) 지원 → ('29년) 100개 육성 목표

□ **[線 : 상권 조성] 로컬기업이 모여 함께 성장하는 상권 조성**

- **(상권조성)** 잠재력 높은 로컬기업 집적지가 상권으로 발전하도록 공동 마케팅·브랜딩, 인프라 등 지원('26년 50곳 → '30년 1,000곳)

- 노후·방치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도시채움시설에 로컬창업가 우선 입주 + 로컬창업타운* 확대('25년 8개소 → '30년 17개소)

* 지역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공유오피스 등 소상공인 혁신공간으로 운영

- **(골목상권 특별법 제정)** 골목상권의 조직화, 브랜딩, 판로, 공동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
 - 특색있는 지역 골목상권 기획을 위해 권역별 상권기획 전문회사* (年 50개) 육성 및 지역공동체가 함께 출자하는 상권혁신펀드** 조성
 - * 등록, 전문교육, 활동내용 공시 등 관리체계 구축(지역상권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)
 - ** 출자 : 지역성장펀드, 지역기업·금융기관, 민간투자사, 상인 등
 - ↳ 상권활성화를 위한 ACVC 등의 투자의무 완화를 임시 허용하는 벤처투자법상 특례 추진

□ **[面 : 확산]** 전국으로 펼쳐지는 활력 상권

- **(글로벌 관광상권)** 방한객이 집중*된 서울 外로 관광소비가 확산 되도록 지역대표 글로벌 관광상권 17곳 조성(~'30년, 상권당 50억원)
 - * 방한객 관광지('24년, 관광공사) : (서울) 78.4% (부산) 16.2% (경기) 10.0% (제주) 9.9%
 - 관광객의 시각에서 상권을 평가할 수 있도록 대국민 참여 방식으로 선정하고 외국인 체험단 운영
- **(체험소비형 특화상권)** 지역의 미식·문화유산·체험활동 등을 즐길 수 있는 로컬 테마상권 50곳 조성(~'30. 상권당 40억원)
 - * 예시 : (미식형) 강릉 커피거리 (문화유산형) 경주 황리단길 (체험형) 양양 서퍼비치
 - 전통시장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명소가 되도록 백년시장 12곳 조성(~'27. 시장당 30억원)
 - * 지속 기간별 상설 전통시장 : (100년 이상) 48곳, (70년 이상) 157곳
- **(내몰림 걱정없는 상권)** 상가 관리비 내역 제공을 의무화하여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편법 방지(상가임대차법, '26.5~)
 - 임대인-임차인 간 임대료 안정화 상생협약 확산*
 - * 지역상권법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시 지방세 감면, 융자, 활성화사업 등 지원 가능
- **(지방상권 중심지원)** 지방 우대 원칙에 따라 지방의 재정자주도 등을 기준으로 국비를 차등지원*하여 재정 부담 완화
 - * (예시) 기존국비:지방비 = 5:5 → 우대국비:지방비 = 6:4

◆ **규제·금융혁신, 재도전, 개방형 생태계 등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**① **(규제) 창업기업 대상 규제특례 부여, 덩어리 규제 해소 추진**

- ① **(메가특구) 5극3특 중심으로 메가특구 내 전략육성 산업에 속하는 창업기업에 특화해 적용가능한 메뉴판식 규제특례 부여**

< 창업기업 대상 적용 가능 규제특례(案) >

- ①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우대
- ② 신산업·기술 창업기업 육성 지원 범위에 대한 특례
- ③ '민관협력형'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, 창업자금 지원 우대
- ④ 지역특화형 신산업·기술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 추진

- ② **(광역연계 규제자유특구) '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' 도입(복수 지방정부 참여) → 국가전략산업 관련 덩어리 규제 해소('26년 시범 2곳 → ~'30년 5곳)**

▶ 중기부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모델 제시* →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게 규제자유특구 기획·운영** → 규제합리화·사업화 등 중기부 후속 지원

* 지역별 산업특성 등을 고려해 업종간 융합, 공급망 구축 등 광역특구형 사업모델 제시
↳ (예시) 스마트농업, 신유통물류, 신해양레저, 의료관광, 수소 등 5개 사업모델 제시

** 규제자유특구 기획단계부터 사업운동을 담당할 전담PM팀을 시·도별로 운영

- ③ **(공공구매) 창업기업 공공구매 제도*를 확대(벤처기업 제품 추가)해 중·후기 벤처의 B2G 시장 진출 촉진('26년~)**

* 공공기관은 연 구매총액의 8% 이상 창업기업제품으로 의무구매(중기창업지원법 제38조)
→ 벤처기업 제품 추가 등 중기창업지원법 개정안 발의('26.上)

▪ **스타트업 공공구매 관련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강화**

- * ① 배점 조정 : (現) 중소기업(0.375점), 창업기업(0.125점) → (改) 배점 상향
② 지표 개선 : 비계량 지표에 창업기업 제품 구매 노력 및 성과 추가

② (금융) 민간투자 유도 3종 세트 도입·추진

【 민간투자 유도 3종 세트 】

① (비수도권) 비수도권 벤처투자에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

▪ 비수도권 민간투자자에 손실위험 완화 등 인센티브 대폭 강화

- * 지역성장펀드 자펀드에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비율 확대(10 → 15%),
최초 출자자에게 출자자 지분을 모태펀드가 매수토록 청구할 권리(풋옵션) 부여(30% 이내)

< 지역성장펀드 인센티브 패키지 >

구 분			현행	개선
손실위험 완화	우선손실충당 확대		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(10%)	우선손실충당 비율 확대(15%)
	풋옵션 신규		-	최초 출자자에게 출자자의 지분을 모태펀드에게 매수토록 청구하는 권리 부여(30% 이내)
수익성 제고	택 1	초과수익이전	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을 이전(30% 이내)	좌동
		콜옵션	모태펀드 출자지분을 출자자에게 매도토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부여(30% 이내)	좌동
	투자기업 지분 우선매수권		자펀드 투자기업 지분 우선매수권 부여	좌동
대상별	민간 은행	위험자산가중치 하향	민간은행 출자시 위험자산 가중치(RW)를 100%로 적용	좌동
	공공 기관	공공기관 인센티브 신규	-	자체 수익으로 출자하는 공공기관에도 인센티브* 적용 * 우선손실충당 등 민간출자자와 동일한 인센티브 부여 검토

▪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참여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500억원 규모의 '창업열풍펀드' 조성('26)

- * 펀드 운용사가 모두의 창업 오디션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투자연계 강화

② (초기주식거래) 초기기업 주식거래 활성화 및 코스닥 경쟁력 강화

- (모험자본) 모험자본 중개플랫폼을 신설('26.下)해 스타트업 자금조달 수요와 전문투자자(VC, PE 등)의 투자수요 매칭

- (비상장주식) K-장외거래소 제도화(現 2개사 인가심사중)를 통한 경쟁 체제 도입*으로 비상장주식 거래의 접근성·효율성 제고

*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소 제도화('25.9월, 시행령·감독규정 개정),
현재 K-OTC(금투협) 1개만 존재 → 민간사업자 진입(인가) 추진 중

- (토큰증권) 토큰증권*을 통한 증권 발행·유통 활성화

*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증권 발행·유통정보 등을 기재·관리하는 증권
(「전자증권법」 및 「자본시장법」 개정안 '27.2.4일 시행 예정)

- (코스닥) ①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전면 도입, ②부실기업 엄격·신속 퇴출, ③연기금 등 안정적 기관투자자 자금유입 유도

- ▶ (맞춤형 기술특례상장) AI, 우주, 에너지 분야 우선 도입 → '26년 중 분야 확대 추진
- ▶ (부실기업 퇴출) 동전주, 저시가총액, 자본잠식, 공시위반 등 상장폐지 요건 강화 및 상장폐지 집중관리기간 운영(~'27.6월)
- ▶ (기관투자자 자금유입) 기금운용평가지침 기준수익률에 코스닥 지수 반영(0%→5% '26.1월)

③ (퇴직연금·연기금) 연기금의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제도개선 추진

- (퇴직연금)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('27년, 퇴직급여법령 개정 추진)

- (연기금투자활) 기금운용평가 상 벤처투자 인센티브 확대('26.1.)

* 벤처투자 가점 확대(최대 1→ 2점), 정성평가(투자 다변화 노력)에 벤처투자 추가 등

③ (개방형 생태계) 제조 AX 압목지, 개방형 혁신, 데이터 개방 등

① (제조 AX 압목지) 제조업 현장의 압목지를 데이터화하여 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제조 AI 솔루션 개발

- '26년 ^{추경}480억원 투입, 30개 공정별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'30년까지 1,000개 이상 제조공정에 AI 적용 목표

② (개방형 혁신) 대·중견·공공기관이 국가 전략산업 분야 스타트업과 개방형 혁신*을 추진하고 국가가 최대 3.4억원 지원**

* 스타트업을 대중견·공공기관과 매칭해 협업기회 부여, 정부 R&D 지원 연계 및 사업화자금 지원

** 단계별 성과 달성 시 국가가 마일스톤 방식으로 투자

(①매칭 검증 → ②기술 검증(최대 1.4억원) → ③시장 검증(최대 2억원))

③ **(동반성장 지원)** 창업초기 기업의 성장을 위해 대·중견·글로벌 기업과의 **협업 지원**(최대 2억원)* 프로그램 대폭 **확대**(추정 600→1,434개 기업)

* 기술검증, 시제품제작 등 협업과제 수행시 최대 2억원의 사업화자금 지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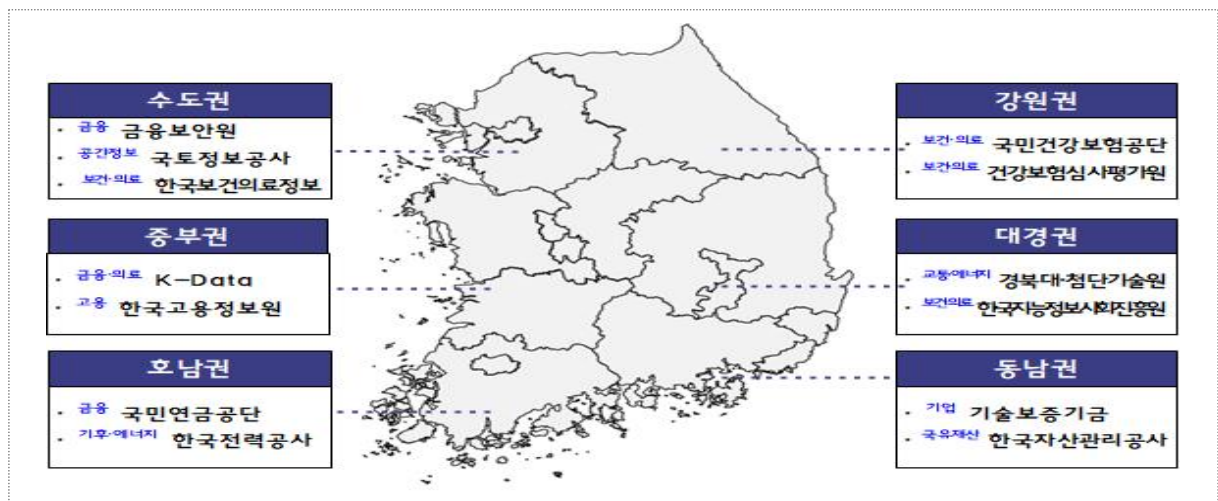
- **청년 창업기업이 개발한 AX 솔루션을 제조업 등 전통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 바우처 신설**(추정 10개사, 100억원)

④ **(공공데이터 개방)** 의료·안전 등 기업 요구가 확인된 공공데이터 **Top 100 개방*** + 비공개 정보 제외한 모든 공공데이터 목록 공개**

* Top 100 개방 계획(누적) : ('25)10개 → ('26)35개 → ('27)65개 → ('28)100개

** 공공데이터법 개정 추진

< 주요 공공기관의 데이터 열람·분석 공간 구축 사례 >



- 데이터 보유기관과 스타트업 등을 매칭해 기업의 공공데이터 확보 문제를 해소하는 **문제해결지원센터***(’25.7월 개소) 운영 강화

*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(NIA)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 내 설치·운영

- **예비·초기창업자의 DX·AX 문제를 데이터 전문인력을 활용해 지원하고 그 과정을 자산화·개방하는 오픈형 AI·데이터 문제해결랩(Lab) 운영**

▶ (개요) 5극3특 지역 내 예비·초기창업자가 직면한 DX·AX 문제를 데이터·AI 분야 전문 자격을 보유한 인력을 활용해 유형·단계별로 문제해결 지원하고 그 과정을 자산화·개방

▶ (절차) 문제 접수(공모) → 문제 분류*(유형·단계) → 문제 해결 지원 → 자산화 → 개방

* (유형) 핀포인트 지원형 / 전주기 지원형 (단계) 설계 / PoC 수행 / 현장검증

④ (재도전) 도전·실패의 경력이 자산이 되는 도전 플랫폼 구축

① (도전경력 증명서) 창업 경험을 데이터*로 축적 → '도전 경력서' 발행

* '창업 성과기록' 데이터 구축 + 매출, 투자유치, 재창업 등 성장이력 연계

- '모두의 창업' 프로젝트에 참여한 창업가에 '도전 경력증명서' 발행 → 향후 창업지원 사업(모두의 창업 등) 참여 우대

② (청년창업도전학교) 실패 경험을 갖춘 청년 대상으로 경험 공유·경쟁과정에서 창업 성공을 실현하는 '청년창업도전학교' 신설

- ▶ (방향) 성실 실패의 경험을 갖춘 창업가를 우선 선별하여, 청년창업가 상호 간 경험 공유 등을 통해 창업에 자유롭게 도전하는 (가칭)청년창업도전학교 신설
- ▶ (주요내용) 보육 및 사업화 지원, 오디션 방식 평가(연 3회) 실시(우수기업 별도 대상 추가 사업화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), 재도전 청년 경연 추진('26.11월)

③ (자금공급) 재창업자 전용자금*(추정500억원) 및 재도전 패키지** 지원(추정100억원, 185→298개사) 확대

* 재도전 및 성실실패자의 성공적 재기를 위한 자금 융자(중진기금)

** 재창업자 대상 사업화자금, 창업 교육 및 멘토링, 중진공 재창업자금 연계 등 패키지 지원

- 재도전펀드 1조원 규모로 조성(~'30) 등 펀드·융자 확대

- ▶ (펀드) 1조원 규모 재도전 펀드 공급('21~'25년 1,500억원 → '26~'30년 1조원)
- ▶ (융자) 회생기업 전용자금(年 50억원) 지원 범위를 회생종결 → 회생절차 기업까지 확대

④ (재도전 플랫폼) 재도전 응원본부('25년 12개소) 중심 '재도전 플랫폼' 구축 → 재도전 스토리* 등록(아카이브) + 도전응원금(예: 10만원)

* 재도전 플랫폼에 실패극복 사례 등록 유도('26년 100건 이상)

- 창업사업 전반에 재도전 도전 경력 우대지침(가점 등) 마련

5 [글로벌 협력] 해외 네트워크 구축 및 합동 창업경진대회 개최

- 해외 주요국 한인 스타트업 협·단체 간 '글로벌 K-파운더스 네트워크' 구축
 - 한인 스타트업 협·단체 및 글로벌 창업가가 등록·교류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구축 및 민·관 합작 글로벌 프로젝트*(행사·IR 등) 추진
- * (UKF 82 스타트업 서밋) 미국 전역을 연결하는 UKF(한인창업자연합) 주최, 1,000명 이상의 한인 벤처투자자·스타트업이 모이는 미국 최대 규모 한인 스타트업 행사
- 한·중 합동 창업경진대회 개최 → 양국 창업생태계 동반성장 추진
- * (中 칭화대 도전컵) 2,700개 학교, 300만 학생이 참여하는 대학생 경진대회

6 [지원체계]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·운영

- 법률·세무·경영 등 창업자가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'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' 17개소 구축(추경+53.5억원)
- 온·오프라인 원스톱 지원 플랫폼 운영
 - ▶ (온라인) K-Startup 포털을 확대·개편하여, 창업사업 신청 창구를 넘어 주요 애로 분야별 종합지원 플랫폼으로 확장
 - ▶ (오프라인)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(17개소)를 지역 현장창구로 지정하여 지역별 전문가(법률·경영 등) 및 멘토(선배 창업가 등) 연결
- 9대 지원분야 대상 AI 기반 종합 지원체계 구축
 - ▶ (9대 지원분야) 현장 창업가가 주로 희망(설문조사 등)하는 9대 핵심 지원 분야 운영
→ 법률, 세무·회계, 지원사업, 공간·행사, 경영, 마케팅, 해외진출, 투자유치, 특허·지재권
 - ▶ (AI 상담체계) 간단·긴급 애로사항에 대해 신속한 상담을 위한 AI 챗봇 운영*

* 1단계 정부 창업지원사업 정보제공(도입 시) → 2단계 경영전반 기초상담 구현('26.下)

IV. 추진일정

정 책 과 제	추진 시기	담당 부처
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

1.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

▶ 1차 프로젝트 공모	'26.3.	중기부
▶ 2차 프로젝트 공모	'26.6.	중기부

2. 기술인재 중심 창업도시 조성

▶ 4대 거점 창업도시 지정	'26.上	중기부
▶ 창업도시 6곳 추가지정	'27.上	중기부
▶ 과학기술원 창업원 신설 및 확충	'26.下	과기부
▶ 과학기술원 학사제도 개선	'27	과기부
▶ 창업기업 전용 R&D 지원 확대	'27	중기부
▶ TIPS 지역 50% 우선 할당	'27	중기부
▶ 창업도시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	'27	중기부
▶ 창업도시 특화산업 창업기업 사업화자금 지원	'26.下	중기부
▶ 5극3특 권역 중심 지역성장펀드 조성	'26.上~	중기부
▶ 엔젤투자허브 및 KVIC 지역사무소 확장	'26.下~	중기부
▶ 과기원별 창업 인프라 개방	'28~	과기부
▶ IP 사업화 전략 패키지 지원	'26	지재처
▶ 스타트업 대상 국가·공공연구기관 보유 IP 개방	'26.下	지재처
▶ 첨단기술분야 스타트업 대상 초고속 특허 전용트랙 신설	'26	지재처
▶ 한전 기술지주회사 설립	'26.6	기후부
▶ 기후테크 혁신펀드 조성	'26	기후부

정 책 과 제	추진 시기	담당 부처
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

3.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

▶ 전국의 혁신 로컬기업 발굴	'26.上	중기부
▶ 투자금액 매칭 용자·사업화자금 지원 LIPS 확대	'26	중기부 등
▶ 생활형 혁신 기술개발 지원	'26	중기부
▶ 글로벌기업 육성 프로그램 신설	'26.上	중기부
▶ 로컬기업 집적지를 골목상권으로 육성	'26.上~	중기부
▶ 로컬창업 공간 지원	'26.上~	국토부 등
▶ 골목상권 특별법 제정 추진	'26上~	중기부
▶ 글로벌 관광상권 조성	'26.上~	중기부 등
▶ 체험소비형 특화상권 조성	'26.上~	중기부
▶ 상가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화	'26.上	법무부

4. 규제 · 금융혁신 · 재도전 · 개방형 창업생태계 조성

▶ 메가특구 내 창업기업 특화 규제특례 부여	'26.下	국조실
▶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도입 및 덩어리 규제 해소	'26~	중기부
▶ 창업기업 공공구매 제도 확대	'26	재경부 등
▶ 창업열풍펀드 조성	'26	중기부
▶ 모험자본 중개플랫폼 신설	'26.下	금융위
▶ 퇴직연금 벤처투자 시범투자 시행	'27	노동부 등
▶ 제조 AX 암묵지 활용	'26	산업부
▶ 국가전략산업 분야 개방형 혁신 지원	'26	중기부
▶ AX 솔루션 동반성장 바우처 신설	'26	과기부
▶ 오픈형 AI·데이터 문제해결랩 운영	'26	과기부